

오늘의 계시판

오늘 (21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21일 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신원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씨가 강사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주제로 강연, 062-654-3427
▶제6회 광산 꽃박람회=오전 9시 광주시 광산구 쌍암호수공원. 개관식은 오후 6시30분. 광주·전남 꽃예술작가연합회 등 30여단체에서 분재·꽃꽂이·새우란분경·야생화분경·절화 품종전·희귀식물 품종전·선인장 정원·허브테라피·석부작(목부작) 작품 등을 전시.
▶대나무골 실버 건강대학=오전 11시 담양군 문화회관 소공연장.
▶제5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걷기대회=오후 3시 담양군 추성경기장 야외구장. 900명이 참가. 추성경기장~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금월교 구간(3.5km)을 왕복.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걷기대회 오후 3시 담양군 추성경기장 일대

▶나대옹장군 추모제=오전 11시 나주시 소총사.
▶2006 화순고인돌축제 개막행사=오후 6시30분 화순군 고인돌공원. 낮 12시40분 화순군청 신관 4층 회의실. 세계석석문화 국제학술대회 (22일)
▶광양시 보건의료인 한마음 체육대회=오후 1시 광양시 실내체육관.
▶중요무형문화제 제 53호 채상장 전수교육관 개관=오전 11시 30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불기 2천550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및 나주 발전을 위한 기원 법회=오후 7시 나주시 심향사.
▶고인돌 건강걷기 대회=오후 1시30분 화순군 고인돌 축제장. 500명 참석 예정으로 고인돌 축제장내 잔디 광장부터 화순군 춘양면 고인돌 유적지 구간(2km) 왕복.

▶시립무용단 수시공연 '이야기가 있는 발레'=21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백조의 호수·카르멘·비발디 사계 중 봄 등 공연.
▶이무지치 실내악단 내한공연=22일(토)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비발디 '사계'.
▶광주연우회 제 44회 정기연주회=22일(토)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박항숙·강양은·임영민·변성호·신동민 등 출연,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제 26회 이화실내악단 정기연주회=22일(토) 오후 8시 나주시 천주교 나주순교자 기념성당.
▶전남도립극단 상설공연=22일(토) 오후 5시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 3천원·대학생 2천원·초중고 1천원.
▶제 306회 토요민속여행 상설 공연=22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진도의 신령'이라는 주제로, 남도 민요·창곡·판소리·강강술래·진도아리랑 등 공연.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상설 토요공연=22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담양국악원 공연.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미술단체 초대전 '남도 문화의 정신을 찾아서'=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전남 문화협회 소속 중견 작가 30명의 작품 60여점 전시
▶인도세밀화전=5월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성군 대원사 티벳 박물관 소장 인도세밀화 50점 전시. 인도 민속용품도 전시된다.
▶최상중 서양화전=2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작고한 서양화가 최상중씨의 유화 23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유치원의 창시자 프뢰벨 세상 떠남(1852)
▶미국, 쿠바 독립 승인(1896)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 세상 떠남(1910)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세상 떠남(1946)
▶브라질 새 수도 브라질리아 지어짐(1960)
▶과학기술계 개칭(1967)
▶아폴로 16호 달 착륙(1972)
▶한·영 문화협정 체결(1982)
▶진로 그룹 부도, 부도방지협약 적용(1997)

뉴스퀴즈

8. 최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으로 판명, 독일 월드컵 본선 출전이 좌절되면서 한국축구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까.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최용수 ② 조재진
③ 이도국 ④ 안정환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공공초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16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남녀가 만나 교제와 연애를 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 한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종로 3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가 늦었다. 여자가 불평을 늘어놓는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를 생각하다가 한 정거장을 지나쳤어"라고 말한다. 여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남자에게 안긴다.
모 중학교 교무실. 남자선생님이 커피 4잔을 쟁반에 받쳐와 여선생님 세 명 중에서 한 여선생님 먼저 커피를 준다. 남자선생님이 한 여선생님의 커피에 대고 속삭인다. "김선생님을 위한 커피입니다. 다른 선생님은 덤이고요." 여선생님의 불이 붙어진다. 사랑은 굳이 말하자면 관심 하나, 배려 하나, 이해심 하나 정도 차이이다. 이것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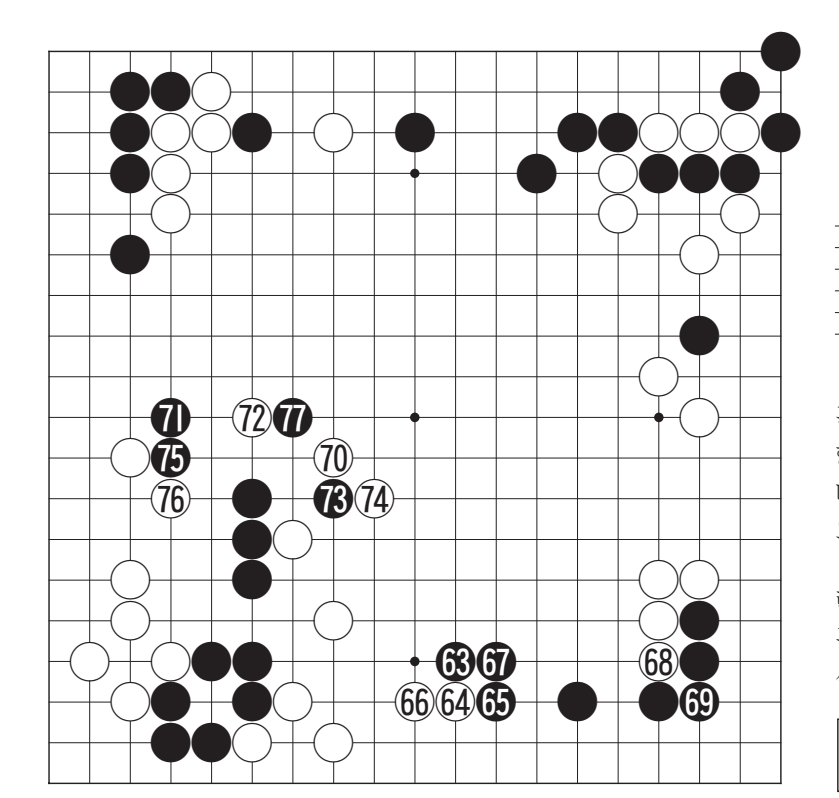
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알면 쉽다. 사랑은 자연발생적으로 싹트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커플들은 회사나 일터, 학교에 분산되어 꼭꼭 숨어 있다. 숨은 짝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데이트할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현대에서 사랑은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화에 수석으로 합격하 사람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학원이나

것이 벤치마킹이다. 처음부터 더 잘 하려다가 그마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똑같이 하면서 상대에 따라 자기방식을 더하면 된다.
연애선배가 성공한 그 방법도 수차례 심사숙고 하고 표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그만한 성공적인 연애를 했을 것이다.
둘러보면 주변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연애 스승은 많이 있다. 생생한 경험자의 현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듣는 것은 행운이다. 기존자는 성공 케이스다. 현장에서 성공한 방법은 소중한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연애에 성공하려면, 좋은 스승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모시고, 그에 따라 더불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대상을

연애의 성공은 벤치마킹과 노력

과외를 비교적 적게 하고 1등으로 합격했다는 인터뷰를 한다. 아마 맞을 것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결혼 커플들도 틈틈이 시간을 내고,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했다고 한다.
연애의 원칙이 있다면 두 당사자간의 톨업 것이다. 둘 사이의 톨도 두 사람간의 합의 때문에 무너지기도 쉽다. 그렇기에 연애는 매우 쉬운 통과의례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연애에 처음이거나 서툴면 벤치마킹이 손쉬운 방법이다. 벤치마킹은 벤치마킹 대상보다 잘하려고 하면 안된다. 처음에는 똑같이 하는

만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48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어, 60년생 중년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72년생 사기꾼이 달려든다. 주변을 정리하라, 84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행운의 숫자 : 18,43
37년생 여유로운 하루다. 49년생 아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 주라. 61년생 전화위복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8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0,32
38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신생한다. 50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62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주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7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거나 자신은 우유.
행운의 숫자 : 06,42
39년생 큰 덕은 자선에 있다. 51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63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75년생 욕심을 버려라.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3,28
40년생 융화상상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52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사방이 소란하다. 64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니 배풀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24,41
41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 53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65년생 회비가 잊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77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행운의 숫자 : 20,27
42년생 지내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4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6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하니 가려서 들어라. 78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22,39
43년생 모든 일이 참거나 종래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55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67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흥변을 조심하라. 79년생 합리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행운의 숫자 : 15,16
44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56년생 과욕과 어리서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않으리라. 68년생 재사가 순조롭게 신생되며 자유롭게 진행된다. 80년생 애기치 못한 억속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25
45년생 增補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57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된다. 69년생 결과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81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05,37
46년생 비의 불평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정과 配人의 불평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08,34
47년생 비정할 고역이 축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9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71년생 친제에 선견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83년생 친제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40



바둑소식

바둑소식
루이, 물가정보배 첫승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지난 19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물가정보배 본선 C조 리그에서 한종진 6단에게 281수 끝에 흑 7집반승을 거두고 첫승을 신고했다.
루이 9단은 이날 승리로 1승1패를 마크, 결선리그 진출의 불씨를 살렸다. 현재 C조 리그에서는 이창호 9단과 최원용 4단이 1승씩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종진 6단은 2패째다.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는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의 속기전이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한국물가정보에서 후원하며 우승 상금은 2천200만원 (준우승 7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31>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A: OK, everybody. Let's call it a day!
B: I'm glad you said that. It's been such a hectic day.
A: It really was! I'm dead tired.
B: I'm really pooped, too!
A: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B: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하루였네요.
A: 정말 그래요. 전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B: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Let's call it a day! : = Let's stop now.
= That's all for today.
hectic = busy
I'm dead tired. : = I'm wiped out.
pooped = exhausted

오하이오 니혼고 <631>

誰かと同棲でもしているんじゃないの?
누군가와 동거라도 하고 있는거 아니야?
A: ほう、誰(だれ)だっけ? ああ、おきなじみの朴(バク)さん。あれから、便(たよ)りかなんかくる?
B: それが、アメリカに行(い)ったとき、音沙汰(おときた)がないです。
A: もしかして、誰(だれ)かと同棲(どうせい)でもしているんじゃないの?
B: まさか彼(かれ)がそんなことするはずがありませんよ。
A: 이봐, 누구였지? 아,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사귀던 박씨 그 후 소식 같은 거와?
B: 그게 미국에 간 후로는 소식이 없습디다.
A: 혹시 누군가와 동거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B: 설마 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幼(おきな)なじみ :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사귀는 사이의 사람, 소꿉친구(보통 이성을 일컫음)
便(たよ)り : 소식, 편지
音沙汰(おときた) : 소식, 편지, 연락
彼(かれ) : 그의, 남자친구

니하오 쑹구위 <378>

气管炎
공처가
A: 余(余)生(生)好(好)像(像)有点(有点)怕(怕)寒(寒)寒(寒)。
B: 我们(我们)都和(和)金(金)先生(先生)是(是)气(气)管(管)炎(炎)。
A: 肺(肺)炎(炎)是(是)不(不)好(好)的(的)病(病)。
B: 我们(我们)都和(和)金(金)先生(先生)是(是)气(气)管(管)炎(炎)。
A: 肺(肺)炎(炎)是(是)不(不)好(好)的(的)病(病)。
B: 我们(我们)都和(和)金(金)先生(先生)是(是)气(气)管(管)炎(炎)。
A: 肺(肺)炎(炎)是(是)不(不)好(好)的(的)病(病)。
B: 我们(我们)都和(和)金(金)先生(先生)是(是)气(气)管(管)炎(炎)。

한자 이야기 <248>

安樂死 (안락사)
편안한 안, 즐길 락, 죽을 사
안락사(安樂死)는 편안하고 즐겁게(安樂) 맞이하는 죽음이다.
안(安)은 安(안: 지붕)+여(女)로, 여성을 집안에 안전하게 있게 한 모습이다. 락(樂)은 나무(木) 위에 실(立)을 쳐 놓은 모습으로 현악기, 음악, 즐거움을 뜻한다. 사(死)는 부처신 배 알(喪)과 인(人)이 합하여져서 사람의 생명이 다하였음을 나타낸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苦痛)을 받고 있는 불치(不治)의 환자(患者)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조치(措置)를 취하는 것이다.
적극적(積極的) 안락사는 불치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격심할 때 독물(毒物)이나 기타방법으로 빨리 죽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소극적(消極的)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인공호흡기(人工呼吸器)를 제거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위법성(違法性)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심각한 윤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이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도 안락사를 조건부로 인정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소극적 안락사는 대체로 긍정되는 추세이다. 무엇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 깊게 성찰할 필요를 느낀다.